

■韓銀 2월중 국제수지 동향 집계해보니

서비스수지 25억불 적자 사상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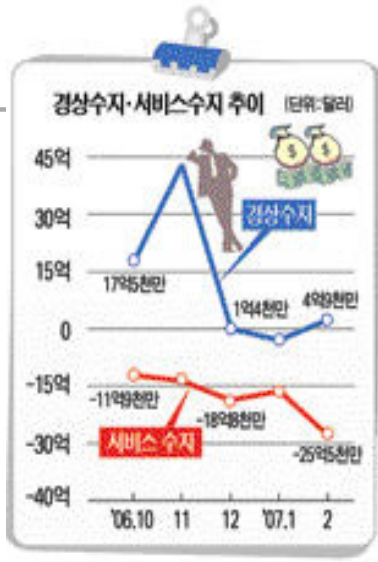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줄었으나 특 허권 사용료와 무역관련 서비스이용 료 대외지급이 늘면서 2월 서비스수지 적자가 월간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1월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2월에는 4억9천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특허권 사용료 급증 탓...여행수지적자 10억달러 넘어

상품수지 흑자 덕에 경상수지 한달만에 흑자로 반전

서비스수지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25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작년 8월의 적자액 20억9천만달러보다 4억6천만달러 늘어난 것이며 올해 1월의 19억4천만달러에 비해서는 6억1천만달러 증가한 규모다.

가 2월에 포함돼 영업일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허권사용료 수지적자는 1월 1억6천만달러에서 2월 4억1천만달러로 늘었고 무역관련 서비스수지 적자도 같은 기간 2억3천만달러에서 4억7천만달러로 악화됐다.



한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4억8천만달러로 1월의 11억9천만달러에 비해 12억9천만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급증한 것은 통관 기준 수출입차 흑자폭이 확대된 데다

을 취업 더 힘들겠네

기업 채용규모 작년보다 21% 줄 듯

올해 기업들의 채용인원 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00인 이상 고용기업 709개를 대상으로 채용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예상규모가 작년 실적 대비 21.4%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非)제조업이 각각 24.4%, 16.8% 줄어든다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7.2%, 32.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에 대한 채용규모는 30.4% 감소하고, 고졸 이하 채용의 경우 10.4%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대졸 이상 학력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졸 이상 채용과 관련해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33.2%, 비제조업이 26.1% 각각 감소하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7.2%, 중소기업이 37.0%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졸 이하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11.4%, 8.4% 줄어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6.5%, 27.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고용 위축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됐다.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8%였고, '현재까지 인력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22.3%, '채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나 유동적이다'는 기업은 30.9%였다. 이 가운데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작년에 비해 16.2%포인트나 줄었다.

채용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업들은 인건비 압박(23.7%), 정치·경제의 불확실성(23.4%), 가동률 저하(15.8%), 투자규모의 동결·축소(15.8%)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직장인 "디지털기기가 없인 못살아"

MP3플레이어 등 1인당 평균 3.5대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23~26일 직장인 1천316명에게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첨단 디지털기기 소유 여부를 묻은 결과 1인당 평균 3.5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복수선택)는 휴대전화(95.8%), MP3플레이어(70.6%), 디지털카메라(68.5%), 전자사전(28.6%), DVD플레이어(23.2%), 네비게이션(22.3%), DMB단말기(16.8%), PMP(12.1%), PDA(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첨단기기들을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출퇴근시'(25.8%)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심심할 때'(22.0%), '취미생활을 즐길 때'(15.0%),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12.2%), '업무수행할 때'(10.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 기기를 구입·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달 평균 '5만~10만원'(29.6%), '1만~5만원'(27.0%), '1만원 미만'(12.8%), '10만~15만원'(12.5%), '15만~20만원'(9.1%) 등의 순이었다.

대출구직자 43% "학자금 대출 경험"

대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탐인(www.saramin.co.kr)은 최근 대출 구직자 1천650명을 상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조사대상자의 43.1%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평균 3학기 분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중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라는 대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기 때문에' 16.6%,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12.9%) 등이 꼽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추세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53.6%), '서민경제 파탄을 유도한다'(25.8%), '적당 수준의 인상은 정당하다'(11.4%), '교육의 공공성이 퇴색된다'(5.6%) 등으로 답했다.

신 훈 아시아나그룹 부회장 한국주택협 차기회장 내정

한국주택협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신 훈(62)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30일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제15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임기는 다음달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이다.

신 부회장은 광주주고와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 아시아나항공 부사장과 금호엔지니어링 대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돼지고기도 선물 거래

거래소 연내 상장 방침 금융의 상품 중 최초

올 하반기에는 돼지고기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양돈 농가와 가공업자는 돼지고기 가격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축산발전협의회와 축협조합 등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돈육 선물을 연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 산출해 3천kg(35~40마리) 단위로 거래되며 거래 기간은 돼지의 통상 사용기간인 6개월 단이다. 예컨대 양돈 농가가 돼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물 매도를 하면 6개월 후에 가격이 떨어져도 예상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 규모는 2005년 기준 3조7천586억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1천300여 농가가 돼지 938만마리를 기르고 있다.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조사 대폭 강화

잔류농약·식중독균 검사

학교 급식에 사용되거나 폐광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은 28일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을 반영, 올해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정밀조사 분석 건수를 지난해 2만7천건에서 올해 4만건으로 45% 늘리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역시 100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증액했다.

독곡도 조사(200건)한다. 지난해 학교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됐던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농산물 분석법이 식약청 등에서 확립되면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125개 폐광산 주변 농지와 공단 주변 평야지역에서는 14억원을 들여 쌀·배추 등 10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1만건)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전량 수매, 폐기한다. 아울러 벼 등 곡류에 대해 농약 성분 150종과 곰팡이독소 3종의 잔류 수준, 세척량 등을 조사해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모든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표시

7월부터 확대 시행 위반 신고엔 포상금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산물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고 GMO 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콩·콩나물·옥수수·감자 등 4개인 GMO 표시 대상품목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물'로 확대된다. 또 GMO 표시제도에 예외 대상지 표시 단속에 활용

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및 방법도 보완됐다. 같은 품목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지리적 표시'의 대상 품목도 기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서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창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 와이브로 서비스폰 출시

삼성전자는 4월부터 와이브로 서비스가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와이브로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가 결합된 '와이브로 스마트폰(SPH-M8100)', 와이브로와 HSDPA가 결합된 USB형 무선데이터 모델 '와이브로 USB 동글(SPH-H1200)', 복합단말기 '디럭스 MITs(SPH-P9000)' 등 3종의 단말기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와이브로 서비스가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와이브로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가 결합된 '와이브로 스마트폰(SPH-M8100)', 와이브로와 HSDPA가 결합된 USB형 무선데이터 모델 '와이브로 USB 동글(SPH-H1200)', 복합단말기 '디럭스 MITs(SPH-P9000)' 등 3종의 단말기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Table with columns: Job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Start Date, End Date, Contact Info.